

# 아파트 야간순찰 중 넘어짐

## 재해개요

2018년 5월 23일(수) 오전 02시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재해자가 야간순찰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출혈이 있어 119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, 귀가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5월 27일(일)에 사망함.

## 재해발생 상황도



- ※ 아파트 뒤편 모퉁이를 지나다 넘어진 것으로 추정(해당 장소에서 재해자의 우산과 모자 발견)
- ※ 재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한 지점에 혈흔이 있었다고 동료 경비원 진술

## 재해발생 원인

- **근로자 통행로 안전조치 미흡**
  - 재해 추정 장소에 맨홀, 철근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경고표지 등의 안전조치가 없음
- **뇌경색 발생으로 인한 넘어짐(추정)**
  - 재해자는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, 재해 발생 당시 뇌경색이 발생하여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음

## 예방대책

- **안전한 이동통로 확보**
  -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맨홀과 바닥의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철근 등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함. 위와 같은 조치가 어려울 경우, 장애물이 있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
- **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**
  -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,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함. 야간근로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배치해야 하며,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